

공보의 대거 떠나는데 총원은 불투명

제주지역 공보의 52명 중 20명 내달 '복무 만료' 추자 등 도서지역 의료 공백 우려... 보건당국 고심

제주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공보의) 38%가 다음 달 전역한다. 그런데 이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 총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보건소·보건지소·국립병원 등에서 복무 중인 공보의는 52명(의과 17명, 치과 17명, 한의과 18명)이다. 이 중 약 38%인 20명(의과 7명, 치과 6명, 한의과 7명)이 오는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보충역에 해당한다. 주로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농어촌·도서지역을 포함한 의료취

약지역에 배치돼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 달 공보의 전역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부분은 신규 인력 총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 수가 문제다. 올해 총원될 신규 의과 공보의가 작년 대비 20%(90여 명)도 안 될 것으로 보이면서 도내에서 빠지는 인원만큼 공보의가 채워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보의 수급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다 현역 일반병(18~21개월)보다 긴 복무기간(37개월)으로 공보의 복무 기피 현상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규 공보의 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에 의료 공백이 우려돼 제주 보건당국의 고심도 깊다.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신규 공보의 신청이 없는 상태이고 공보의 배치가 줄어들면 도서지역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보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침이 까다로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아직 복지부에서 배치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월 새 없이 돌아가는 스프링클러 11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들녘에서 한 농민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매마른 농경지에 물을 살포하고 있다.

제주서 나포된 中 어선 역대 담보금 첫 적용

대통령 지시로 담보금 대폭 인상... 4000만→2억원 비밀어창에 어획물 숨긴 어선 2척에 총 3억원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해 담보금이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가 제주에서 나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 상선 선적 A호(219t, 2척식 저인망 승선원 9명)와 중국 상선 선적 B호(219t, 2척식 저인망 승선원 9명)에 각각 담보금 2억원, 1억원을 납부받아 전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쪽 약 108km 해상에서 조업하며 어획물을

비밀공간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약 4081kg,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약 2160kg의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선박은 함께 조업을 했지만 주선인 A호에게 더 많은 담보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일부터 조업 일시 부실기재의 경우 담보금이 기존 최대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

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담보금이 대폭 인상된 바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간 관할 해역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은 총 23척이다. 연도별로 2023년 6척, 2024년 9척, 2025년 8척 등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각각 3.85억, 16.4억, 7.2억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논문 표절 의혹 연구원 '해임' 해당 연구원 "부당해고... 신고"

제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심각한 논문표절 작성을 이유로 해임조치됐다.

11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연구원 소속 A 연구원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논문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연구원은 조사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해당 연구원은 관련 규정 에 따라 해임 조치됐다.

해임 처분을 받은 A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 사건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다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이드 할인 악용 무등록 여행업 적발

중화권 관광객들 상대 영업 자치경찰, 성수기 집중 단속

제주에 온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을 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등록 여행업을 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을 악용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40대 A씨와 외국인 유학생 2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이들 관광객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영업을 했다. A씨는 단속 초기에는 "관광객들과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치경찰이 단속 동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 지속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B씨도 지난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인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차량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에서 30~40% 할인되는 점을 악용해 그 차액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잠복을 통해 이동 경로와 입장권 구매 형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자들은 단순 진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며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3개월 만에 '마약' 차 봉지 또 발견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8번째

해안가에서 마약 케타민이 담긴 차 봉지가 3개월 만에 발견됐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6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한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차 봉지가 발견됐다는 바다환경지킴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물체는 무게 1kg의 은

색 차 봉지 형태로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포장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 '케타민'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했지만 추가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민·관·군 합동 수색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안가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번 차 봉지 마약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발견된 것으로 18번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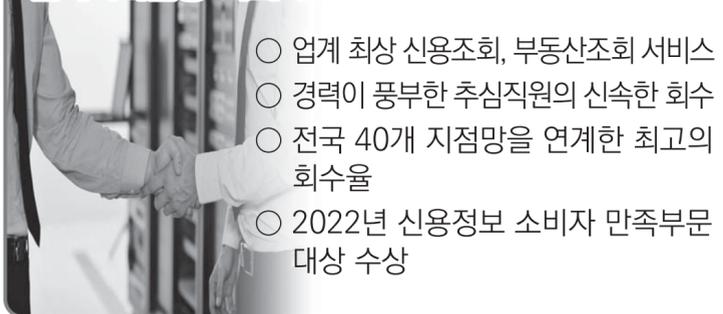
한편 해경은 지난 1월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이 지난해 7월 초순 대만 서부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유실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